

# 젊은 여성 독자를 잡아라, '칙릿(chick-lit)' 열풍

글\_ 서주현 북코스모스 저작권팀 영미권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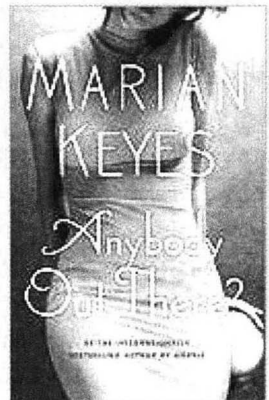
‘여자들이여, 현실주의자가 되라. 정신보다 물질과 육체, 속된 욕망을 숭상하라.’

최근 국내출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칙릿(chick-lit)', '칙북(chick book)' 류의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다. 이념보다 현실이, 추상적 가치보다 구체적 목표가 중요하다는 20대 여성들의 성공 욕망이 연간 매출이 100억원에 이르는 새로운 출판시장을 창조하고 있다.

'칙릿(chick-lit)'은 젊은 여성을 뜻하는 '칙(chick)'과 문학(literature)의 '릿(lit)'을 합친 조어로 이삼십대 여성들을 겨냥한 영미 대중소설을 뜻한다. 젊은 여성(chick) 독자를 노린 소설(lit. literature)로, 말하자면 로맨스 소설의 신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로맨스 소설이 지극히 여성적인 주인공이 낭만적인 사랑을 얻는 얘기라면, 칙릿은 다소 중성적인 여성이 사회적 성공과 더불어 사랑마저 쟁취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칙릿은 1996년 영국작가 헬렌 필딩(Helen Fielding)의 《브리짓 존스의 일기, Bridget Jones's Diary》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르네 젤위거와 콜린 퍼스·휴그랜트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로 영화화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장르는 미국, 아시아, 동유럽 등으로 퍼져 나가 전 세계의 출판계는 비슷한 유형의 도서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에 발맞추어 대형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칙릿을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임프린트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주요한 곳으로는 Harlequin의 Red Dress Ink, Simon&Schuster의 Downtown Press, Kensington의 Strapless 등을 들 수 있다. 칙릿은 또한 틴(teen) 칙릿, 에스닉(ethnic) 칙릿 등의 하위 장르도 탄생시켰다.



## 미국의 칙릿 최근 동향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에서는 많은 칙릿 작가들이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Good in Bed》, 《In her shoes》 등으로 잘 알려진 제니퍼 웨이너(Jennifer Weiner)의 《The Guy Not Taken: Stories》(Atria, 2006년 9월), 베스트 셀러 《Something Borrowed》(2005년 4월)의 저자 Emily Giffin의 《Baby Proof》(2006년 6월), Marian Keyes의 《Anybody Out There?》(William Morrow, 2006년 5월), Jennifer Kaufman, Karen Mack의 《Literacy and Longing in L.A.》(Delacorte Press, 2006년 5월) 등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랜덤하우스(Random House)는 Emma McLaughlin, Nicola Kraus의 공동저작물 《Citizen Girl 요약판》(2006년 11월)을 오디오북 형태로 출시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칙릿의 정의, 역사, 새로운 트렌드 등을 비롯, 칙릿북을 쓰는 방법 및 조언 등이 담겨있는 책들까지 속속 출간되고 있다. Sarah Mlynowski와 Farrin Jacobs가 《See Jane Write: A Girl's Guide to Writing Chick Lit》(Quirk Books, 2006년 8월)를, 《L.A. Woman》의 저자 Cathy Yardley가 《Will Write

for Shoes: How to Write a Chick Lit Novel》(St. Martin's Press, 2006년 9월)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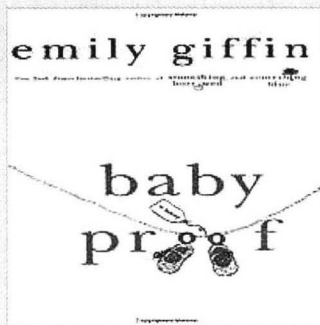
초기의 칙릿은 '도시의 싱글 여성'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근교의 기혼 여성', 혹은 '자신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애쓰는 미망인'까지 칙릿의 소재가 된다. 이 분야의 대모로 불리는 《Watermelon》(2002년 4월)의 작가 Marian Keyes는 "칙릿은 이 시대 여성들의 독특한 관심사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워너북스(Warner Books)는 이미 파이프 스팟(5 Spot)이라는 여성 전문 임프린트를 시작했고, 이번 가을에는 대부분의 독자 타깃을 베이비부머 세대와 여성 독자들을 중심으로 설정한 스프링보드 프레스(Springboard Press)를 선보인다. 특히 하이퍼리온(Hyperion)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임프린트인 보이시(Voice)를 준비 중인데,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을 그 타깃으로 할 예정이다.

하이퍼리온 마케팅 팀은 Leslie Bennetts가 아이를 기르느라 자신의 일을 포기하면서 경제적, 지적, 감성적 이익까지 박탈당한 여성들에 대해 쓴 《The Feminine Mistake》를 필두로 다섯 개 작품의 마케팅에 집중할 생각인데, 걱정하고 '안티 칙릿'을 향해 덤벼들 기세다. 이 첫 번째 라인업 리스트에는 영화화되기도 했던 《Must Love Dogs》(2005년 7월)의 저자 Claire Cook의 소설 《Life's a Beach》와 아이들이 가정을 떠난 후의 삶을 그린 Karen Stabiner의 《The Empty Nest》도 포함되어 있다.

### 칙릿 열풍, 언제까지?

칙릿은 작품성이 없는 통속소설로 치부되지만, 전통적인 여성적 주제들을 여성들의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



하는 방식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칙릿은 성(性), 소비, 욕망, 육체성 등에서 과거와는 전혀 달라진 '요즘 여자들'을 전제로 한다. 칙릿 열풍 뒤에는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시대에 몰신주의, 육체주의, 쾌락주의로 무장한 채 사랑과 결혼 '시장'에서든 직업 '시장'에서든 '생존'하려는 젊은 여성들의 초상이 있는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제인 스프링 다이어리》, 《쇼퍼홀릭》, 《달콤한 나의 도시》 등과 함께 《여자생활백서》같은 미혼여성 처세서가 인기몰이에 한창이다. 이 책들은 이삼십 대 여성들의 삶을 대변한다. 라이프스타일, 취미, 남성과의 만남과 섹스 등 그들이 겪는 일상을 있는 그대로, 경제적 독립과 욕망을 중시하는 젊은 여성들의 감성과 욕망을 담아 내고 있다.

이러한 인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소설뿐 아니라 지금처럼 다른 장르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니면 미국의 주요 출판사들이 독자층으로 목표하고 있는 삼십대 이상의 여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될까? 이도 저도 아니면 칙릿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류에 둔감하고 타인과 관계 맺기에 서툰 남성을 그리고 있는 디릿(dick-lit)에 그 영광의 바톤을 넘겨주게 되지는 않을지 향방을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한지연**

#### 이 글을 쓴 서주현은

자칭 '책을 통해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북피스트(bookpist (book+happy+ist)).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가치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전파하는 게 꿈이다. 북코스모스 에이전시의 저작권 에이전트로 영미권 도서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영어 및 일어 통번역 활동도 하고 있다. 증개한 책으로는 《내 생애 남은 아름다운 날들》 《미친 뇌가 나를 움직인다》 《돈의 원리》 《Smart Question》 《동방을 꿈꾸며》 등이 있다.